

붉은 노을빛으로 물든 무주 역사거리

‘무주문화재야행’ 성료... 8개 밤 테마 공연·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

무주군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한 풍류 등 무주읍 일원에서 2023 무주문화재야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붉은 노을 빛 역사거리를 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한 풍류 주변 문화시설과 유·무형·향토·민속 문화재를 연계·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풍류에서는 23일 저녁 6시부터 부남대길방 아예막이놀이와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의 태권도시범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참극, 국악인 오정해의 판소리, 가스트리아피페티이 펼치는 현악 4중주 극단 그림이 있는 풍경의 ‘최복’ 공연이 펼쳐졌으며 무주군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란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북청사자 놀음(초청공연), 한복패션쇼 등도 무대에 올라 호응을 얻었다.

최복미술관에서는 반디예술단과 국악예술단 시엘, 주계음우회 등 연주 단체들이 펼치는 공연이, 무주군청에서는 삼베 짜기 재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향교에서는 인형극과 해금산 조 클래식, 팝페라와 국악양상불 공연을 비롯해 무주농악보존회 공연이 펼쳐졌다.



무주문화재야행 기간 동안 펼쳐진 오정해의 판소리 공연.

24일 최복미술관(광장)에서는 조선왕조역사관 관람을 비롯해 다도 적상산성 3D 퍼즐 만들기, 한풍류에서는 한풍류 야간 관람을 비롯해 무주큐브 한풍류 3D 한풍류 액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남대천변에서는 두문낙화놀이보존회와 함께 하는 낙화놀이 재연, 낙화봉 만들기와 유등 띄우기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군청 광장에서 펼쳐진 소원등 만들기 행사도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에도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로 붐볐다.

군청 후정에서는 해설사에게 듣는 지질공원

이야기를 비롯해 컬러링 북(색칠이 가능한 그림책)과 팝업 북(pop-up book 책)을 펼쳤을 때 그림 등이 튀어나오도록 만든 책) 만들기, 체험해보는 무주지질공원을 즐겨볼 수 있었으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 무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주군로컬잡(JOB)센터 등 기관·홍보 부스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전간도로에서는 안국사영산회개불탱 컬러링 북 체험, 솟대만들기, 고서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무주문화재를 소재로 한 이야기꾼들의 이야기도 흥미를 끌었다. 무주향교에서는 화가 부활이를 비롯한 저포놀이와 용호생육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마련됐으며 ‘무주를 인형극으로 알(R)리자’ 동아리 회원들이 ‘안국사 학대사의 전설’을 손 인형극으로 보여줘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군청 옆 차림터와 지하주차장 간선 도로에서는 맛(味)따라 흥(興)따라 야식(夜食) 프로그램이 진행돼 저렴한 가격에 문화재 쿠키와 음료, 수제 디저트, 떡볶이, 부추전, 메밀전병, 머루꿀떡, 탕후루, 닭꼬치, 미숫가루, 커피, 식혜 등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었다.

/무주=전문선기자

이은총 미디어플래너, 전북지식살롱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 28일 8회차 강연 공동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전북지식살롱 8회차 강연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8회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은총 미디어플래너가 ‘All about media!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와 Connection을 높이다!’라는 주제로 사기업 광고부터 정부 광고까지 다양한 경험을 한 미디어 플래너가 말해주는 레거시부터 디지털까지 미디어의 변화와 트렌드, 광고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은총 미디어플래너는 “Feel the Rhythm of Korea” 같은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캠페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광고주가 중요하다”며 “그런 광고주의 성공적인 캠페인 그림을 완성하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북지식살롱은 미디어의 변화와 트



렌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및 신청링크(<https://naver.me/Gmmn27>)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063-230-4216)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미술품 대여사업 운영단체 모집

도내 예술가 작품 임대·전시·판매 연계 등으로 소득창출 기회 제공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28일까지 미술품 대여사업 운영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도내 예술가들의 작품을 임대·전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미술품 활용을 유도하고, 판매 연계 등의 활동으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2022 전라북도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의 61%가 작품 판매 시장 등 예술 산업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 기준 전북예술인의 연간 소득은 평균 1.173만원(예술수입 465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술가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 마련하고자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됐다.

올해 시범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민연금공단 롯데백화점 (유)디오나스토어 등 5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전북대학교 등 5개 참여기관·기업은 작품 설치와 전시가 가능한 공간을 일부 제공하고,

재단은 지역의 우수한 작가의 작품을 대여 전시함으로써 기업 종사자와 주민 시설 이용객들에게 일상적 공간에서 작품을 관람·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예술가들은 작품 대여에 따른 비용을 제공받게 된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중앙도서관은 일일 이용객이 5천 여 명으로 학생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재단 협력으로 우리 대학이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경윤 대표는 “최근 전북도가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만큼 우리 재단도 이에 발맞춰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산업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많은 기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기관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 및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www.jtc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이메일(kjt27125@jtcr.kr)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지원팀(063-230-744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부안 도깨비’ 개막

올해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안 도깨비’는 8월부터 9월까지 변신변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매주 토요일 총 18회 공연한다. 이 공연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부안군과 부안예술회 공연장 상주단체인 포스댄스컴퍼니의 주최한다.

‘부안 도깨비’는 격조 도적들과 개성의 도깨비들과 공소와 직소풍에서 행해졌다는 용신제를 모티브로 만든 창작 작품으로 역동적인 도깨비들의 움직임과 황룡 현신을 한국무용, 익스트림 댄스로 표현하는 퓨전 난버릴 퍼포먼스이다.

‘부안 도깨비’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 자치에 의한 유료공연으로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서울서 국가무형문화제 공예작품 판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6월 28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을 열고, 국가무형문화제 전승자들의 공예작품 100여 점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들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전통문화를 담은 복고 열풍을 반영한 스탠드 조명과 스톱 휴지함 등의 생활 잡화들이다.

판매되는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황동 망 위에 들꽃과 곤충을 생동감 있는 자수로 수

놓은 가림막 △누비의 조형적 특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스톱 조명 침선 기법으로 만든 보자기 등 현대적 미감으로 재탄생 시킨 조명 스탠드 등이다. 이외에도 △표면을 현대적인 물결 모양으로 구현한 전통 방짜유기 △물건 담는 용도로 사용되던 채상의 기능을 살려 현대적으로 제작한 휴지함 등 다양한 실내소품들이 대거 나왔다.

이번 판매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단 누리집(www.dtf.or.kr)을 확인하거나 한국문화재단 공예진흥팀(02-3011-21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비눗방울로 만나는 겨울 이야기 ‘스노우 버블 쇼’ 김제서 개최

비눗방울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무대 ‘스노우 버블 쇼’가 7월 8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미술과 버블, 병풍을 통해 낭만적인 겨울의 장면과 크리스마스 등 어린아이들에게 겨울에 대한 즐거운 동심을 더해

신나고 행복한 겨울의 장면을 담은 아름다운 메이지 버블 퍼포먼스 공연이다.

미술쇼, 컬러버블 쇼, 병풍 쇼, 메가버블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다양한 퍼포먼스로 온 가족 모두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행복함과 기쁨이 가득한 공연이 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6월 27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mjg.gok.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김제=곽태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